

## 한국을 겨냥한 뉴질랜드 녹용

본 기사는 지난 여름 KBS TV에서 방영한 전문을 전재함

- 편집자 -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불립니다.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속에서 사람과 동물들이 조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350만명의 인구에 비해 140만마리의 사슴이 사육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세계에서 최고 수치입니다.

남방구에 위치해 있는 뉴질랜드는 한국과 반대로 지금 한창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옵니다. 사슴을 키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남섬의 중심도시 크라이스트처치 주변에는 사슴농장이 많습니다.

뉴질랜드에는 현재 4,000여개의 사슴농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 농장에는 1,200마리의 사슴이 방목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슴들이 모두 한국을 겨냥해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슴에서 나오는 녹용의 대부분이 한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녹용의 최대 수입국으로 뉴질랜드 총수출의 65%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개월정도 사슴뿔이 자라면 그것이 녹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슴의 뿔은 10월말부터 크리스마스에 걸쳐

서 잘라냅니다.

지금 이 사슴들도 지난해 뿔을 자른뒤 새로운 뿔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농장주인 콜린길더씨는 7,000hk의 농장에 10,000마리의 사슴을 키웁니다. 이 큰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5사람 그래서 먹이를 주는 일 정도는 운전수도 없이 길더씨 혼자합니다.

- 콜린길더 퀵스 휠농장주인(크라이스트처치 근교)

“콜린길더씨는 깨끗한 환경에서 추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녹용이 좋다. 겨울내내 우리는 사슴을 돌보고 그중 가장 좋은 수사슴을 씨종자로 사용한다. 나는 모든점이 뉴질랜드 녹용이 질이 좋다고 생각한다.”

뉴질랜드에서 녹용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니다. 원래 뉴질랜드에서는 사슴고기만 유럽으로 수출하고 뿔은 버렸습니니다.

그러나 70년대 초반 몇몇 한국 이민지들에 의해 녹용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녹용이 생산되기 전 콜린길더씨에게 사슴의 뿔은 아무 쓸모가 없는 버리기에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슴의 뿔이 고가의 약재로

쓰인다는 것이 알려진 후에는 뉴질랜드 사슴뿔은 쓰레기에서 돈덩어리로 변합니다.

현재 길더씨가 녹용으로 버는 수입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취재팀에게 그 액수를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사슴의 뿔이 경제적인 상품으로 되자 뉴질랜드정부와 사슴농장주인들은 녹용을 먹는 한국과 몇몇나라를 겨냥해 최고의 녹용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뉴질랜드 사슴농장에서는 호르몬이나 발육촉진제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천연목초나 밀, 보리등을 먹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슴의 수에 따라 농장의 넓이를 정하거나, 농장주들이 중심이 되어 품질을 보증하는 단체도 만들었습니다.

- 로버트 심프슨 : 사슴제품판매위원회

“이것이 사슴농장 공인프로그램에 등록된 모든 농장이 지니는 뉴질랜드 사슴제품 판매위원회(G.I.B)의 상징이다. 각 농장은 고유의 번호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농장의 수를 셀 수 있고 각 농장들은 모든 검사들을 받고 규칙을 준수하게 된다. 이렇게 규칙을 준수하는 농장은 G.I.B에서 품질보증을 하며 그에 따라 축산활동을 한다.”

한국을 겨냥한 뉴질랜드의 녹용은 농장에서부터 엄격한 관리를 거쳐 생산되어 다시 몇단계의 가공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이곳은 농장에서 가져온 사슴뿔을 가공하는 공장입니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25개의 녹용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녹용의 가공은 뉴질랜드 농수산부(MAF)의

엄격한 기준에 맞게 공장시설에서 농수산부 검사관의 입회하에 이루어 집니다.

농장에서 온 녹용들은 뉴질랜드 사슴제품판매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겨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서 한국을 비롯한 홍콩, 대만 등 녹용수요국의 기호에 맞게 분류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뿔이 굵고 속이 붉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녹용은 한국으로 보냅니다. 분류가 끝나면 살균건조기에서 100℃로 모든 균을 죽이고 건조시킵니다. 1차로 살균을 한뒤 다시 2차 살균을 한뒤 저온에서 건조시킵니다. 이렇게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녹용의 질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건조시키는 온도는 각 공장마다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녹용이 수출전략상품으로 되어 뉴질랜드에 이런 녹용 가공공장이 생긴 것은 80년대 이후 부터입니다.

- 이연수 : 녹용가공 공장대표

“1970년경 중국인들로 인해서 녹용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사냥하면서 뿔을 잘랐다. 실제적으로 사슴농장을 시작한지는 얼마되지 않았다. 1972년부터 시작해서 녹용이 많이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도 이후로 생녹용 25~30톤 정도였으며 현재에 이르러서야 생녹용이 500톤 생산되고 있다.”

처음 뉴질랜드에 녹용바람을 일으킨 데에는 한국인들의 힘이 컸습니다.

지금도 뉴질랜드 전체 25개의 녹용 가공공장 중 12개가 한국교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뉴질랜드 정부의 엄격한 관리와 사슴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뉴질랜드 녹용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농업국인 뉴질랜드의 농수산부는 다른 어느 부처보다 권한이 막강합니다.

녹용 가공공장에는 일주일에 2번 MAF, 즉 농수산부 검사관이 와서 공장상태와 녹용의 품질을 검사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공장을 거친 뉴질랜드 녹용은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 리차드 와일드 : 농수산부 검사관

“농수산부(MAF)의 역할은 제품이 정확히 생산되는가를 보증하며 제품을 소비할 소비자에게 생산품의 모든 기준이 적절한가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며 마지막으로 해외시장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뉴질랜드 농수산부의 권위가 제공하는 안전성에 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뉴질랜드 녹용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되기까지는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동물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뉴질랜드에서 사슴의 뿔을 인위적으로 자르는데 대한 반대 여론이 매우 심했습니다.

한때는 뉴질랜드 언론에서 녹용을 먹는 한국인을 비꼰적도 있고 동물학대 방지회 같은 단체에서는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사육하는 사슴에 한해서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뿔을 자르도록 했습니다.

- 밥 케리지 회장 : 뉴질랜드 동물학대 방지회

“지금은 녹용산업이 뉴질랜드에서 상당히 발전된 산업이다. 우리는 야생사슴의 보호에 관심을 집중했다. 지금의 녹용은 대부분이 사육되는 사슴의 것이다. 전에 사슴뿔을 자르는 것

에 반대했는데 그것은 종종 잔인하게 시행되거나 비인간적으로 실행되어 사회 전체가 용납되지 않았다.”

뉴질랜드에서는 고양이가 집을 나가고 기르는 강아지가 조금만 다쳐도 주인은 신고를 하고 동물 AMBULANCE를 부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사슴이 피를 흘리며 뿔을 자르는 것은 뉴질랜드에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슴의 뿔과 피를 먹는 한국인들에게도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서의 우위가 인정되어 사육하는 사슴의 뿔만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도록 하여 현재의 뉴질랜드 녹용산업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와함께 뉴질랜드는 지속적인 사슴의 품종 개량을 추진하여 현재 뉴질랜드 사슴의 90% 이상은 녹용의 효과가 큰 레드, 엘크 등 우수한 품종들입니다.

현재 녹용은 뉴질랜드에서 중요한 산업중의 하나입니다.

지난해 뉴질랜드의 녹용생산량은 600톤에 달하며, 수출액은 7,000천만 뉴질랜드달러 한국 돈으로 400억원이나 됩니다.

한국은 뉴질랜드녹용의 최대 고객입니다.

뉴질랜드의 녹용 총수출액의 65%인 4,500만 뉴질랜드 달러를 한국에서 수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녹용때문에 연간 250억원이라는 거금이 뉴질랜드에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 리차드 리디포드 회장 : 사슴제품 판매위원회

“나는 뉴질랜드 녹용산업이 매우 확실한 토대를 갖고있다고 생각한다. 이 토대는 한국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국가적인 전망을 갖게한다. 한국은 뉴질랜드의 4번째 교역상대국이다. 그것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아주 대량의 녹용을 한국에 수출하여 한국녹용시장의 6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뉴질랜드 녹용의 질과 우리 녹용을 다시 찾는 소비자들에게서 뉴질랜드 녹용이 발전하리라는 2가지 확신을 가진다. 우리는 아주 과학적으로 녹용을 생산하고 질높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

한국이 뉴질랜드 녹용을 제일 많이 수입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누네디에 있는 녹용연구소 입니다. 제임스 서티 박사는 50명의 연구원을 이끌고 녹용을 연구합니다. 그의 방에는 지난해 한국에서 열렸던 한 학술회의 포스터가 붙여져 있습니다. 물론 그는 이 대회에서 뉴질랜드 녹용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 한구석에는 한국과 몇몇 나라에서 만들어진 강정제 및 녹용관련 의약품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최고 품질의 녹용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합니다. 이 연구소의 1년 연구비가 500만 뉴질랜드달러 우리돈 27억원이나 된다는 것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

습니다.

- 제임스 서티 박사: 뉴질랜드 녹용연구소

"현재의 녹용은 가공처리되어 빨상태로 수출된다. 우리는 녹용의 질을 최대화하기 위해 빨의 성장과정과 빨의 제거과정 전반에 관해 심도있는 관찰을 하고자 한다. 이런 정보들이 시장개척하는 분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들이 한국, 대만, 홍콩 시장에 확고히 설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들은 뉴질랜드 녹용을 보고 위생적이며 매우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돼 뉴질랜드 녹용이 최고의 제품이며 판매했만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인터뷰를 마친 서티박사는 취재팀을 연구소내 외부인 금지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녹용의 성분분석과 효과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서티박사는 이 녹용연구소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용의 세계 최대 소비국인 한국에서보다 아무도 먹지 않는 이곳 뉴질랜드에서 녹용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전쟁속에 살고 있는 지금 한국을 겨냥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녹용 계피등 36개기초한약재**

## 내년부터 규격화

복지부 시행예고

1월부터 36개 기초한약재 규격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녹용 계피 등 36개 기초한약재의 규격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서 같은 약재라도 품질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약재의 효능이 떨어지는 등 소비자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규격화 작업은 약재의 품질을 높이고, 약재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격화 작업은 약재의 품질을 높이고, 약재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